

'왜 국민들에게 충을' '가해자' 軍 중심 5·18 재구성

(광주 민주화운동)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 참여 조선대 노영기 교수, '그들의 5·18'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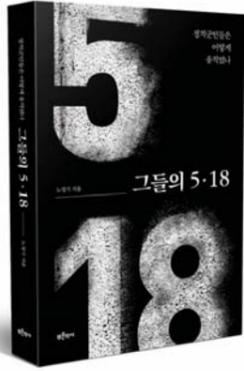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노영기 조선대 교수가 군인을 중심으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재구성한 '그들의 5·18, 정치군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나'를 펴냈다.

그동안의 5·18에 대한 접근이 주로 항쟁주역들에 치우친 데 비해 가해자인 군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남 영광 출신인 노 교수는 조선대 사회과를 졸업한 뒤 상경,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한국 현대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선대, 성균관대, 충남대, 서울대에서 강의했으며,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을 지냈다.

현재 조선대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왜 국민의 군대가 국민들에게 충을 쓰았을까?'라는 질문을 안고서 한국현대사 공부를 시작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조사위에서 2007년까지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12·12와 5·18과 관련된 새로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책은 당시 보았던 자료와 만났던 분들의 증언에 기초한 결과물이다. 노 교수는 5·18의 역사적 맥락을 인과 관계

에 따라 추적하고 있다.

우산, 계엄령과 위수령, 긴급조치 등 군의 정치적 동원,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 투입, 정치하는 군인들(신군부) 등이 박정희 정권이 남긴 유산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1979년 10·26 이후, 12·12군사반란을 통해 군 지휘권을 장악한 이후 신군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어 보안사령부의 부마항쟁 평가와 육군본부의 보고서에 1980년 공수부대의 폭력이 배태됐으며, 이 같은 군의 강경진압을 부추기는 지침이 1980년 5월 광주에서는 공수부대에 의해 더욱 잔혹하게 적용됐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노 교수의 주요 논문은 5·16 쿠데타 주체세력 분석,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에 관한 자료 실태와 연구 현황', '5·18 항쟁기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진혼곡', '5·18 항쟁 초기 군부의 대응', '5·18 항쟁 기록물의 생성과 유통', '여순사건과 국가폭력의 구조' 등이 있다. /뉴시스

인간 수명의 한계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

'무병장수레시피' Gallery 숨 공감·공유 김영란 개인전

'무병장수레시피'라는 전시명으로 5월 25일~6월 5일까지 gallery 숨 전시공간지원기획 '공감·공유' 김영란 개인전이 열린다.

관람시간은 평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토요일에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까지다. 단,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gallery 숨의 전시기획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을 통한 공감과 공유를 원하는 작가의 신청을 받고, 소정의 심의 후에 선정된 작가의 전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하는 gallery 숨의 의지다.

김영란 작가의 '무병장수 레시피'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한다. 기복신앙, 병원의 처방, 건강식품, 운동, 취미, 정신건강, 최상의 환경 등을 조율하며 무병 장수를 염원한다. 이러한 장수



를 이끌어 내는 방안들을 통해 장수를 향한 욕망과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이에 대처하는 삶의 자세를 엿보고 희망의 그 무언가를 조합하고자 한다.

김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또한 2010년 미술부에서 전주시 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장현성·달시 파켓 등 11명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올해 영화제 경쟁부문 작품을 심사할 심사위원 11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경쟁과 한국경쟁, 한국단편경쟁 등 3개 부문 출품작을 심사한다.

국제경쟁 심사위원은 프랑스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서 영화평을 연재 중인 김경욱 평론가와 영화 '마돈나' 등을 연출한 신수원 감독, 영화사 레드퍼터 이동하 대표, 장루 감독, 배우 장현성 등 5명이다.

한국경쟁 심사는 영화 평론가이자 영문 자막 번역가로 활동 중인 달시 파켓, 영화주간지 씨네21의 장영엽 편집장, 장재은 감독 등 3명이 맡는다.

한국단편경쟁 심사위원으로는 독립영화 제작사 아도의 김지혜 대표, 배우 이주영,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대상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장우진 감독 등 3명이 낙점됐다.

비경쟁부문인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에서 시상하는 넷팩상 심사위원으로는 김소희 영화평론가, 김이석 동의대학교 교수, 이정진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가 위촉됐다.

이준복 집행위원장은 "올해 영화제 심사위원은 다양한 연령, 직업, 경험을 가진 분들을 선정했다"며 "공정한 시선으로 세계 영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작품을 선정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뉴시스



순창군은 20일 군청 1층 군수실에서 조근호 작가를 대표로 하는 순창미술발전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성공을 다짐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의기투합

순창군,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위해
조근호 작가 대표로 한 순창미술발전소와 협약

순창군이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힘을 합쳤다. 군은 지난 20일 군청 1층 군수실에서 조근호 작가를 대표로 하는 순창미술발전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마을미술 프로젝트의 성공을 다짐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군은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장소와 자원 확보 등을, 순창미술발전소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약속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건강한 예술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수행단체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이날 협약을 맺은 순창미술발전소가 사업수행을 주관해 오는 6월 공모사업 신청에 대비할 계획이

다. 사업수행을 맡은 순창미술발전소의 총감독인 조근호 작가는 순창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해 광주에서 개인전을 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황숙주 순창군수는 "평범한 시골마을이 미술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마을 주민들 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순창만의 특별함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섬진강 미술관과 출렁다리를 연계한 문화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 조 작가의 손끝에서 변화가 될 순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은 오는 6월 신청을 거쳐 주관기관의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말에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군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체계적인 출렁다리부터 섬진강 미술관까지 예술적인 감성을 입혀 현재의 출렁다리부터 여행길을 새롭게 만들어갈 생각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유튜브 영상 공모' ... 8월 16일까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정부 혁신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2020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9월11~13일)의 일환으로 '무형유산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무형유산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10분 내외의 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영상이면 된다.

제작 시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ihg.go.kr)에 공개한 기록자료(사진·영상·음원 등)를 활용해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모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이며,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누리집(http://ihg.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iff2020_ux@naver.com)으로 응모하면 된다.

본선 진출작은 오는 8월 28일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누리집에 발표하고, 영상 축제 기간에 상영하고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갖는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